



중국  
목련

과명 목련과  
학명 *Magnolia officinalis*  
subsp. *biloba*  
한명 凹葉厚朴  
일명 こうぼく



최명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태연구과

10여년 쯤 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님 한 분이 중국에서 가져오셨다고 하면서 묘목 한그루를 기증하시면서 한방에서 후박(厚朴)이라는 약재로 사용되고 있는 약재가 잘못 사용되고 있어 진짜 후박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 가져오셨다고 하셨던 중국 목련이 2011년 늦봄에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 우리나라의 난대지방에서 자생하는 후박이라고 부르고 있는 상록활엽수인 후박나무는 껍질이 한방에서 사용되는 후박(厚朴)하고는 영 다른 나무이다.

중국목련은 약간 습윤하고 한랭한 곳을 좋아하나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비가 많이 오는 곳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토양은 비옥하고 부드러운 양토나 부식질토양이 더욱 좋다. 중국 원산으로 분포지는 절강

(浙江), 강서(江西), 안휘(安徽), 광서(廣西) 등에서 난다. 국내에는 15년 전쯤 조경수로 활용하기 위해 종자를 도입하여 상당량의 묘목을 생산하여 보급하였으나 널리 보급되지 못하였다.





중국목련은 수고 20m에 달하는 낙엽활엽수로 수피는 자갈색이며 어린 가지에는 가는 털이 있으나 나이가 들어가면 털이 없어진다. 잎은 어긋나며 타원상 도란형이고 길이 35~45cm, 폭 12~20cm로 선단은 2~3.5cm 정도 깊게 들어가는 요두인 것이 일본목련과 차이점이다. 꽃은 양성으로 잎이 핀 다음 가지 끝에 1개씩 달리며 지름 15cm의 큰 꽃이 황백색으로 피며 제일 바깥 꽃잎의 외피는 홍자색이며 향기가 매우 좋다. 10월에 익는 열매는 긴 타원형이고 길이 20cm 이상 되는 것이 있으며 홍자색으로서 관상가치가 높고 종자는 익으면 벌어져서 나와 백색 실에 매달린다.

여름철 길고 넓은 잎은 남국적 향취를 주며 달콤하고 진한 향기를 갖는 꽃은 매혹적이어서 공원수, 가로수로 적당하다. 특히나 어릴 때부터 속성으로 자라는 중국목련은 공원의 잔디밭 귀퉁이에 몇 그루만 모아 심어도 금방 시원한 그늘을 만들 뿐만 아니라 성숙된 잎 사이에서 피는 꽃은 향기가 좋다. 꽃이 지고 난 후 결실되는 열매도 관상가치가 높다.

번식은 가을에 익는 열매를 채취하여 붉은 열매를 얻은 다음 반드시 종자의 바깥을 둘러싼 겉껍질을 제거시킨다, 파종 전에 종자를 흐르는 물에 10일 정도 담갔다가 꺼내서 10분가량 말리면 종피가 벌어지는 데 이때 파종을 한다. 파종은 줄뿌림으로 하며 간격은 30cm 내외이다. 파종 후 3~4cm 정도 흙을 덮어 준다. 2년간 묘포에서 키우다가 본 밭으로 이식하여 재배한다. 산지에 약용수로 재배하여도 좋다.

녹음수로서 역할도 크지만 한방에서는 이 나무의 껍질을 후박(厚朴)이라 하여 위장약으로 사용한다. 🌿

